

김현미 장관, 한-미얀마 인프라 G2G 협력 강화방안 모색

- 미얀마 건설부 장관과 경협산단, 달라 신도시 개발 등 논의 -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1일(월) 세종에서 한 쯔(Han Zaw) 미얀마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점검하였다.
 - 미얀마는 중국·인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천연·인적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,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미얀마를 방문했던 김현미 장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.
 -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진행중인 협력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했다.
 - 우선, 양측은 올 하반기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한-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*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협의하였다.

*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, 약 68만평, 1,300억원(LH·미얀마 건설부 공동투자)

 - 한편, 한 쯔 장관은 지난 12월 한-미얀마 우정의 다리(EDCF사업) 착공식 이후 급부상한 양곤 남부 달라(Dala)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표명했으며, 이에 김현미 장관은 타당성조사 지원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.
 - 그 밖에도, 김현미 장관은 양곤 고가도로 1단계 건설사업*에 팀 코리아(Team Korea : KIND, 도로공사, GS 등)를 구성하여 참여 중인 우리기업에 대한 한 쯔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- * 양곤 시내 내부순환도로 건설·유료운영(30년), 1단계 약 12억\$, '19.10월 입찰 예정
- 양측은 논의된 인프라 협력사업들이 양국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제들을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.

2019. 7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